정읍 구도심 상권활성화 80억 투입

중소벤처부 공모사업 선정
브랜드 개발·테마존 운영 등
2027년까지 상권 부흥 사업

정읍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6차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졌다.

정읍시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이번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도비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등 상권의 부흥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샘고을시장과 중앙로·새암길·우암로 상점가 일대를 상권활성화구역(샘고을 정다운 상권)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권의 특색에 맞는 특화상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테마존 운영과 상권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발표·현장평가'에 직접 나와 '정읍 샘고을 정다운 상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 테마별 디자인 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샘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암길, 우암로 상점가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권협의체를 구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권의 특색을 살린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공모사업 현장·발표 평가에서 이학수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지역 상인과 시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상인대표들과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디지털과 문화자산의 결합, 새로운 환경에 맞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샘고을 정다운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연말연시 사랑을 나눠요" 고창군과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23~25일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사랑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심덕섭 군수, 임정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여성단체회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체납차량 35대 번호판 압수

자동차세·과태료 등 1999건 2억3000만원 체납

고창군이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5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 부근에서 고창경찰서, 도로공사 고창영업소와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날 3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중 11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24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23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1999건 2억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9295건 14억9800만원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호민 고창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교-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연계 확대

여가부-교육청 협약…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지원 등

여성가족부와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 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숙 장관과 서거석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연계한 활동 확대,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교육청·학교·청소년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교육 현장에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 동절기 단축운행

남원시, 겨울철 안전사고 대응

남원시가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의 동절기 단축운행을 결정했다.

남원시는 동절기 안전사고 대응 차원의 한시적 결정으로 정령치 구간 운행은 중단되고 달궁까지의 운행은 지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남원역을 출발해 지리산 정령치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운행 시작 이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 1만1000여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정령치 순환버스를 타고 지리산에 올랐다.

남원시는 정령치 구간 도로 결빙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령치 구간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 대신 하루 3회 달궁까지는 운행한다.

한편 순환버스 첫차(남원역 출발)는 오전 8시 30분, 막차는 오후 4시30분이다. 월요일은 휴무다.

남원시 남원역을 출발해 지리산 정령치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관광의 대표 도시인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리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국제 UAM·드론 엑스포' 성공 개최 시동

내년 10월 개최…남원시, 전담팀 구성 로드맵 마련 등

남원시가 세계 최고권위 드론 스포츠인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함께 '제1회 국제 UAM·드론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남원시는 월드 드론 레이싱 및 드론 엑스포 행사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와 점검을 비롯해 성공적 개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청 내에 국제드론엑스포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성공 개최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날 남원시와 전라북도, ㈔대한민국항공회, 한국모형항공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월드 드론 레이싱 및 드론 엑스포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행사 로드맵 마련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FAI(국제항공연맹)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은 각 나라 대표팀이 경쟁하는 세계 최고 등급의 대회다.

시는 이 대회와 연계해 '제1회 UAM·드론 국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우수한 UAM·드론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미래 개발기체나 기술 동향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열 계획이다.

'2023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과 '제1회 국제 UAM·드론 엑스포'는 내년 10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클래쉬 등 다양한 드론 스포츠와 UAM·드론 선도 기업 첨단기술 시연은 물론 전시부스와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미팅룸 운영, 교육·체험공간 구성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만나볼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